

# 2023년 윤리와 사상 3단원 문제 프린트

## 1번 문제 해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영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덕으로 지혜, 용기, 절제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성적 부분과 관련한 덕을 이성적 덕, 비이성적 부분 중 이성에 따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한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불렀다.

#### {정답 찾기}

② 플라톤은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써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은 절제를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으로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철학적 지혜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이라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위에는 중용이 없으므로 중용이 모든 행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았다.

## 2번 문제 해설

### 플라톤의 이데아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는 최상의 이데아로서 다른 이데아들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어떤 개별적인 사물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사물의 원형이다.

#### {오답 피하기}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 그 자체로 보았다.

② 플라톤은 사물 각각의 원형인 이데아에 의해서 개별 사물이 각각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이상적인 삶은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하는 삶이다.

④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비롯한 모든 이데아는 오직 이성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감각적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계의 사물들이다.

## 3번 문제 해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이성, 기개, 욕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을 이성적 덕, 이성에 따를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감정이나 욕구와 관련된 덕은 품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정답찾기}**

② 플라톤은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려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지혜가 아닌 절제를 이성, 기개, 욕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으로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철학적 지혜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이라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의 지휘에 따른 행위를 반복해야 형성된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덕에 대한 앎이 있어야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4번 문제 해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가)의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세 사상가는 모두 유덕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보았다.

**{정답찾기}**

- ㄷ. 플라톤은 영혼의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보았다.
-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를 갖추야 최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ㄱ.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ㄴ. 플라톤은 ‘좋은[善] 자체’인 좋은의 이데아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자체’와 ‘좋은’은 아무 차이가 없으며 좋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5번 문제 해설**

**플라톤의 사상 이해**

**{문제분석}**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과 실현이 가능한 철학자라고 보았다. 그는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가 각자의 덕목을 갖추고 조화를 이룰 때, 국가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완벽한 상태인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찾기}**

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용기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관한 이성의 지시를 끝까지 지키는 덕이라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계층 간 이동은 자유롭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한 가지 일을 한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은 수호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지만, 생산자의 사유 재산 금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6번 문제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 파악**

**{문제분석}**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을 행복으로 보았으며,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정답해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영혼의 욕구적 부분의 덕인 품

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의 중용과 관련된다.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행위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행위도 목적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선이라 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을 목적으로 하며, 각각의 선이 추구하는 상위의 목적으로 계속 올라가면 궁극적 목적, 즉 최고선에 이르게 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보았는데, 최고선은 그 자체로 선택될 뿐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으로 보았다.

**7번 문제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

**{문제분석}**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구분하였고, 플라톤은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써 기개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고,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감각과 욕구의 기능이 이성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덕이 품성적 덕이라고 보았으며, 품성적 덕은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품성 상태라고 보았다.
- ㄷ. 플라톤은 욕망이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일 때 절제의 덕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올바른 삶을 위해 지혜의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8번 문제 해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선(善)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지가 약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 ② 소크라테스는 무지로 인해서 악(惡)을 행하지,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것을 알아도 의지가 약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기할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의 수련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적 숙고를 통해 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가 약해서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번 문제 해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문제분석}**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국가가 세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영혼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이성이 없는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① 플라톤은 부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플라톤은 선의 참된 본질이 이데아계에 존재한다고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의 참된 본질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②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를 갖추어야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이 품성적 덕인 절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플라톤은 기개와 욕구 부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나 욕구 부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 10번 문제 해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비교

##### {문제분석}

같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성적인 부분이 기개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영혼의 각 부분이 합의하는 것을 절제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세 계층이 각 계층의 역할에 합의하는 것을 절제라고 주장하며,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인 중용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품성적 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② 플라톤은 영혼과 국가의 각 부분에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합의하는 것을 절제라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모든 계층의 재산 공유가 아니라 수호자 계층의 재산 공유를 주장하였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으로 형성되는데,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면서, 덕에 따르는 삶이 곧 즐거운 삶이자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 ⑤ 플라톤은 사물의 본질이 현상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본질은 초월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 11번 문제 해설

####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념 때문에 나쁜 일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을 고수하는 사람이

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앎에 이르게 되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고,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 ②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며, 참된 앎이 있으면 쾌락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정념 때문에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쾌락을 추구하기 쉽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이 덕이고, 덕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한다고 보았다.

## 12번 문제 해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같은 플라톤, 율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계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이데아계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이 세상은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플라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좋음 자체가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플라톤은 최고의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를 모든 학인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의 덕인 실천적 지혜를 따르면 품성적 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영원불변의 참된 지식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각각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플라톤은 영혼을 이성, 기개, 욕구라는 세 부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영혼 중에서 이성이 아닌 다른 부분이 이성의 지시를 따를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3번 문제 해설

### 베이컨의 사상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베이컨의 주장이다. 베이컨은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진리 탐구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통해 자연 과학적 지식을 획득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 ③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 내는 이른바 참된 귀납법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베이컨은 전통적인 삼단 논법과 같은 연역적 방법만으로는 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참된 귀납법이 올바른 진리 탐구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베이컨은 삼단 논법과 같은 연역적 방법만으로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④ 베이컨은 경험적 지식과 지성을 모두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새로운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 ⑤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올바른 학문의 방법으로 참된 귀납법을 제시하였다.

## 14번 문제 해설

### 홉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홉이다. 홉은 인간이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홉에 따르면 인간은 공감 능력으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 {정답 찾기}

ㄱ. 홉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인간의 감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ㄴ. 홉은 도덕적 감정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느끼는 사회 공통의 감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홉은 인간이 개인적 쾌락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통의 관점을 가진 관찰자의 자세를 가질 때 참된 도덕적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ㄹ. 홉은 도덕적 선악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15번 문제 해설

### 스피노자와 홉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피노자, 을은 홉이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성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적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홉은 도덕과 관련하여 이성에 대한 감정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ㄴ.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인과 질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ㄹ. 홉은 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스피노자와 홉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는 능동적 감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할 감정이며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서 최고의 능동적 감정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

ㄷ. 홉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말할 때, 홉은 격한 감정과 강한 욕정에 지배되는 삶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홉이 우세해야 한다고 생각한 감정은 자애심, 덕에 대한 사랑과 같은 차분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 16번 문제 해설

### 홉과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홉, 을은 스피노자이다. 홉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최고의 행복으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홉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갖게 한다.

#### {오답 피하기}

① 홉에 따르면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고,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며 감정의 노예여야 한다.

③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이고, 인간은 실체가 변한 모습, 즉 양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는 자유 의지를 부정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 17번 문제 해설

스피노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정답 찾기}

④ 스피노자는 신과 우리가 하나이며 자연의 모든 존재가 신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 ③ 스피노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인간을 실체(實體)가 아니라 신, 즉 자연의 한 양태(樣態)로 보았다.

## 18번 문제 해설

데카르트와 베이컨 사상의 이해

### {문제 분석}

같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철학의 제1원리로 삼았다. 베이컨은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1원리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연역하고자 했으며, 인간은 확실한 지식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데카르트는 근대 이성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이성적 추론에 의한 지식 획득을 중시하였다.
- ②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참된 지식의 출발점을 찾고자 하였다.
- ③ 베이컨은 근대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참된 귀납법에 의한 지식 획득을 중시하였다.
- ④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9번 문제 해설

스토아학과, 아우구스티누스,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에픽테토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병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신을 자연, 이성 등으로 표현하며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신의 존재 원인인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 {정답 찾기}

③ 스피노자는 신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지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지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

상으로 보았다.

②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는 인간이 인과적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스토아학파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을 추구하였다.

## 20번 문제 해설

### 데카르트와 베이컨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같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④ 베이컨은 전통적인 연역적 방법과 단순 경험적 방법만으로는 자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경험과 지성이 결합된 참된 귀납법을 통해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데카르트는 관찰과 실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철학의 제1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베이컨은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은 확실한 지식들을 연역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베이컨은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참된 귀납법을 사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1번 문제 해설

### 아우구스티누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계를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로 구분하고 신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라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원죄를 짓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필연성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정, 스피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스피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스피노자는 만물의 내재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은 필연적 인과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정, 스피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을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 되는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로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정, 스피노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



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신앙을 통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신, 즉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 22번 문제 해설

### 스피노자의 기본 입장 파악

#### {문제 분석}

가상 대담의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스피노자는 직관적 인식을 통하여 신, 즉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자연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 ②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된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지 모든 감정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스피노자는 능동적인 감정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행위 하고 기쁨을 느끼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는 신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신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 즉 양태라고 주장하였다.
- ④ 스피노자는 신을 초월적 창조자로 보지 않고 자연 그 자체, 즉 내재적 원인으로 보았다.

## 23번 문제 해설

### 스토아학과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

#### {문제 분석}

(가)의 값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므로 자연을 지배한 이성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스토아학파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적 이성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으로서 바꿀 수 없고,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 관조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 ② 스토아학파는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신이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 ④ 스토아학과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천상의 나라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행복으로 본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 24번 문제 해설

###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값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스피노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좋은 것을 알지만 나쁜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ㄷ. 스피노자에 따르면 만물은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 발생한다. 인간의 정념도 마찬가지이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는 모두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없다. 가령 질투나 절도에는 중용이 없다.

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의 양태이다.

**25번 문제 해설**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

**{문제 분석}**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율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에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참된 앎이 곧 덕’이라는 입장에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④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소피스트 중에서 절대적인 존재와 진리 및 그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사상가는 고르기아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와 관련하여 회의주의적인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② 프로타고라스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소크라테스는 용기의 덕 그 자체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앎의 안대를 받아야 용기의 덕이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공동체에서 이성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를 정립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보았다.

**26번 문제 해설**

**소크라테스의 사상 이해**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된 앎이 곧 덕임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②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것이라고 보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 영혼을 수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소크라테스는 부와 명예 등의 세속적 가치보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였다.

③ 소크라테스는 욕구에 대한 절제를 강조하였지만, 행복을 실현하려는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④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강조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대한 탐구보다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였다.

⑤ 소크라테스는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7번 문제 해설**

**소피스트와 플라톤의 사상 이해**

**{문제 분석}**

같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율은 플라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았지만, 플라톤은 나라의 세 계층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다.

**{정답 해설}**

ㄴ.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의 참된 근거를 현실 세계에서 찾았고, 플라톤은 이상 세계(이데아 세계)에서 찾았다.

**{오답 피하기}**

ㄱ.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보았다.

ㄹ. 플라톤은 정의를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에 의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8번 문제 해설**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문제 분석}**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고르기아스는 회의주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존재와 진리 및 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하였다.

**{정답 찾기}**

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수련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리에 관해 회의주의 입장인 고르기아스에게 소크라테스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소크라테스는 감각에 의한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를 통해 학문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고르기아스는 인간이 인식한 것을 타인에게 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절대적 진리 및 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사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29번 문제 해설**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플라톤,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부분에 필요한 덕을 갖추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의 덕이 아니라 종교적 덕중 하나인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신의 은총을 받아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신인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오답 피하기}**

ㄹ.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모든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 근거이자, 존재 근거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존재 근거로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0번 문제 해설**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에피쿠로스, 같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비롯하여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이므로 이성을 통해 이러한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고 운명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ㄴ.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비롯하여 세계 안의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이므로 이성을 통해 이러한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 모두 죽음에 대한 이성적 숙고를 통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게 되면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뿔뿔이 흩어져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감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ㄹ.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토아학파는 죽음은 운명이며 이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일 때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된 입장이다.

**31번 문제 해설**

**아우구스티누스가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라고 주장하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질서 잡힌 사랑, 즉 바른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노력을 통해 각각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라는 이상적 삶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므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계시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원죄로부터 구원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에피쿠로스는 신의 본성에 따르면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②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와 영혼이 모두 소멸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만물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2번 문제 해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 입장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을 갖추어야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제대로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덕들 중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다.

**{정답 찾기}**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행복은 은총과 신앙을 통해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을 믿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사랑해야 신의 나라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절제, 용기, 정의, 지혜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모든 선을 선하게 하는 최고선이라고 보았으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33번 문제 해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를 구분하고, 지상의 나라는 신을 멀리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이며,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는 나라라고 보았다.

#### {정답찾기}

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최고선으로 보고,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ㄴ.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나라가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원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신앙과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이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상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사랑이어야 왜곡된 사랑이 아니고 바른 사랑이라고 보았다.

ㄹ.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보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천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34번 문제 해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였으며,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하여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 {정답찾기}

③ 아퀴나스는 궁극적인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고,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라고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에 따라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을 인간의 도덕적 의무로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이 결핍된 것으로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35번 문제 해설

아퀴나스의 윤리 사상 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 {정답해설}

ㄷ.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 됨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ㄱ.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는 인간의 완전성은 인간이 신과 접촉하고 인간을 위한 신의 계획을 완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ㄴ. 아퀴나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내세에서 이루어진다.

### 36번 문제 해설 아퀴나스의 기본 입장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인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③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인 자연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아퀴나스는 신 존재의 이성적 증명을 통해 신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 존재의 이성적 증명 그 자체가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②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신 존재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최고의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⑤ 아퀴나스는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은 신의 뜻에 따른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 37번 문제 해설 칼뱅의 기본 입장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칼뱅의 주장이다. 칼뱅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칼뱅은 직업을 신이 내린 소명으로 보았으므로 직업적 성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칼뱅은 인간은 자신의 직업을 신의 소명(召命)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② 칼뱅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③ 칼뱅에 따르면 직업은 소명이며, 신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이다.

⑤ 칼뱅은 직업을 통해 신이 부여한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 38번 문제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완전한 덕을 따르는 정신의 활동으로 보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은 현세적 행복이며, 진정한 행복의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종교적 덕을 추구함으로써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

#### {정답 찾기}

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모두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현세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덕으로 보았다.

ㄷ.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행복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보고, 완전한 행복은 종교적 덕을 추구함으로써 신과 하나가 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은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 즉 철학적 지혜라고 보았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이라고 보았다.

### 39번 문제 해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분석}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옳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퀴나스에게 최고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현세의 행복 그 이상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참된 행복으로 보았다.

#### {정답해설}

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②, ④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행복은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주어진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⑤ 아퀴나스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제시할 견해가 아니다.

### 40번 문제 해설

아퀴나스의 입장 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행복이 자연법을 따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 {정답찾기}

④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을 통해 내세에 신과 하나가 되고,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완전한 행복인 지복(至福)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는 이성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기초가 되듯이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믿음·소망·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41번 문제 해설

에피쿠로스와 밀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옳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나.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행복 실현을 위해 고통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감각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기. 에피쿠로스는 친구들과의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르. 밀은 공리주의의 기준이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이라고 보았다.

#### 42번 문제 해설

##### 아우렐리우스와 칸트의 사상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아우렐리우스, 을은 칸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세계 안의 모든 일은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에 의한 것임을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이러한 순리에 따를 때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이성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④ 칸트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는 행복에 의해서 의지가 규정될 경우 결코 선의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우렐리우스는 우주의 질서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우주 만물의 본질은 이성이며,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아우렐리우스는 쾌락의 추구보다 세계 시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③ 칸트는 이성을 지닌 존재자가 절대적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⑤ 아우렐리우스는 도덕적인 삶을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삶이자 행복한 삶으로 보았다. 칸트는 도덕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43번 문제 해설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규칙 공리주의, (나)는 행위 공리주의 입장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일반적으로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도덕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정답 해설}

⑤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는 모두 결과론에 해당하는 윤리 이론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 ② 규칙 공리주의는 과거 경험에서 공리가 이미 입증된 규칙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 ③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자의 동기나 의지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 ④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44번 문제 해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는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 (나)는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정답 찾기}

① 행위 공리주의는 더 큰 유용성을 가져다준다면 도덕적 직관에 맞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오답 피하기}

- ② 행위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본다.
- ③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④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의 도덕적 선악은 최대의 행복을 산출해 내는 규칙의 준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고 본다.

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 45번 문제 해설

##### 밀의 윤리 사상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이다.

###### {정답 찾기}

② 밀은 쾌락의 질과 양이 필연적으로 비례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밀은 쾌락을 평가할 때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밀은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그리고 쾌락을 뜻한다고 보았다.

④ 밀을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을 바람직한 삶의 목적으로 보았다.

⑤ 밀은 정신적 쾌락이 감각적 쾌락보다 질적으로 더 높다고 보았다.

#### 46번 문제 해설

##### 에피쿠로스, 벤담, 밀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벤담, 병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면서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⑤ 에피쿠로스, 벤담,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벤담과 밀의 입장이다.

② 벤담과 밀도 구분별한 욕구 충족에서 오는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밀도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벤담과 밀의 공통 입장이다.

#### 47번 문제 해설

##### 벤담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ㄴ.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 도덕 원리로 제시하였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으로 제시하였다.

ㄷ. 벤담은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행복과 도덕을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는 행복과 의무가 상충한다면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벤담은 긍정, 칸트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도덕이 행복이나 유용성과 같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ㄹ. 벤담은 긍정, 칸트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의 동기라고 보았다.

### 48번 문제 해설

고전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의 입장 비교

#### {문제분석}

‘나’는 선호 공리주의자, ‘어떤 사람들’은 고전적 공리주의자이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선호 공리주의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본다.

#### {정답찾기}

② 선호 공리주의는 어떠한 행위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쾌락 증진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호, 즉 바라는 것이나 욕구하는 것의 실현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최선의 결과이며 옳은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선호 공리주의자가 고전적 공리주의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 {오답피하기}

① 고전적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본다. 따라서 선호 공리주의자가 고전적 공리주의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③ 고전적 공리주의는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고 동시에 사회적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선호 공리주의자가 고전적 공리주의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④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을 선, 고통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선호 공리주의자가 고전적 공리주의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⑤ 고전적 공리주의는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가 유용성을 산출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49번 문제 해설

밀, 벤담,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가)의 갑은 밀, 을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 쾌락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곱 가지 기준을 통해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라고 하면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정답찾기}

③ 벤담과 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들은 쾌락을 인간의 삶의 목적이자 선이라고 보면서 쾌락을 도덕의 기반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성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가 벤담과 밀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이다.

#### {오답피하기}

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은 산업 혁명 이후 개인의 무절제한 이윤 추구하고 빈부 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밀이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벤담과 밀은 모두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행복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이 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벤담은 자신의 행복 추구하고 더불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며 자신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산출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만, 칸트는 결과와 관계없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밀이 칸트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50번 문제 해설

### 도덕적 행위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거나, 동정심과 같은 경향성에 따라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정답 찾기}

⑤ 칸트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하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무는 쉬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약속 준수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자 했으므로 칸트가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사례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②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겠다는 규칙’은 보편화하기 어려운 준칙이다.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③ 칸트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즐기는 감정 때문에 행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④ 칸트는 정직한 행위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행해질 때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 51번 문제 해설

### 흠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갑은 흠, 을은 칸트이다. 흠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의 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행복이 도덕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의무와 행복이 상충한다면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흠은 도덕성의 기초를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고 보면서 감정을 중시하는 윤리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은 도덕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으며,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흠은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③ 흠은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④ 칸트는 의무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으로 규정하고,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형태로 다가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인간의 공감 능력을 도덕적 의무의 근거라고 보지 않았다.

⑤ 흠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 52번 문제 해설

**{문제분석}**

(가)의 값은 벤담,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벤담은 도덕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리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평정심의 상태라고 보았다.

**{정답찾기}**

ㄱ. 쾌락주의를 계승한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은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은 긍정, 에피쿠로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에피쿠로스는 이성으로써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며, 정의로운 삶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오답피하기}**

ㄴ. 벤담은 도덕이 쾌락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려 깊음, 정의와 같은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과 에피쿠로스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ㄸ. 벤담은 모든 쾌락이 오로지 양적인 차이만 있으며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3번 문제 해설**

훔, 칸트, 밀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분석}**

값은 훔, 을은 칸트, 병은 밀이다. 훔은 행위의 도덕성이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의해, 밀은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답해설}**

④ 훔은 도덕적 선악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도덕적 감정에 의해, 칸트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기초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훔은 이성이 도덕적 행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나 절차를 알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자연적 감정이 도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동물과 달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단지 의무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여야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54번 문제 해설**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이성이 자기 힘만으로 실천적일 수 있으며, 행위의 도덕성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서 정해진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⑤ 칸트는 도덕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행복 실현을 위해 세운 행위 준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도덕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이므로 서로 별개의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행복 실현을 위해 덕스러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오답피하기}**

①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유일하게 선이고 고통은 유일하게 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규칙이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칸트는 행복이나 쾌락 등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여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에서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의 회피, 즉 고통의 부재 상태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칸트가 에피쿠로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 55번 문제 해설

칸트, 밀, 듀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칸트, 을은 밀, 병은 듀이이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듀이는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보편적 도덕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보고, 보편적 도덕 원칙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인가 도덕성의 기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밀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밀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개인의 희생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듀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듀이는 지식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을 산출해야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56번 문제 해설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에픽테토스, 을은 에피쿠로사이다. 에픽테토스는 우주 만물의 본질은 이성(logos)이며, 신과 자연, 인간은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일은 이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므로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행복한 존재인 신은 인간에게 호의나 악의를 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⑤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바탕으로 정념에 초연한 상태인 아파테이아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공격적인 삶을 피하고 소박한 삶(또는 소극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① 에픽테토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② 에픽테토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운명, 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면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평온함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정념과 편애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57번 문제 해설

스토아학파의 사상적 입장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일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 죽음도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찾기}

①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우주 또는 자연은 이성에 의해 지배되며, 모든 일은 신의 섭리에 맞게 일어난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기꺼이 의무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 {오답 피하기}

②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아우렐리우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이성을 따르는 삶이란 자연을 따르는 삶이며 신의 예정과 섭리를 따르는 삶이다.

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 58번 문제 해설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시키되 허황된 욕심, 즉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 및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만 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②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는 부와 명예 등 외적인 조건의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온한 삶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에픽테토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각 개인이 사회적 역할의 수행과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는 참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④ 에픽테토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⑤ 에픽테토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정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59번 문제 해설

스토아학파의 입장 이해

###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키케로이

다. 스토아학파는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이성과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지향하였다.

**{정답 찾기}**

⑤ 스토아학파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자연의 필연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덕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운명에 따를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스토아학파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따라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스토아학파는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도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므로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스토아학파는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행복을 방해하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60번 문제 해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윤리 사상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정념은 이성에 따르는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⑤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는 행복을 위해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 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에픽테토스는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에픽테토스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자연적인 감정은 인정하였다.
- ④ 에픽테토스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자연의 질서를 따른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61번 문제 해설**

**스토아학파의 기본 입장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의 주장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② 에픽테토스는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때,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지닐 때 이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에픽테토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 ③ 에픽테토스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다. 고통의 부재를 통한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 ④ 직업적 성공에 따른 부의 축적을 신의 구원의 징표로 해석한 사상가는 칼뱅이다.
- 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보다 개인적 만족을 우선시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 62번 문제 해설

### 에피쿠로스와 플라톤 사상의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의 덕을 발휘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① 플라톤은 정의가 단순히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정의와 같은 덕목들은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고, 오로지 쾌락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② 플라톤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정의는 영혼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적인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의와 부정의 구별은 동물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는 즐겁게 살지 않고서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63번 문제 해설

###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같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율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부동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이 적극적인 욕망의 충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ㄱ. 에픽테토스는 우주의 모든 일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은 바꿀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평온한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고통에서 벗어나 쾌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ㄹ. 에픽테토스는 감각적 쾌락과 같은 비자연적 정념에 대해 초연할 것을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쾌락의 절제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 64번 문제 해설

아우구스티누스가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파악

#### {문제 분석}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이 강조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다.

#### {정답해설}

⑤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 {오답 피하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자연이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것을 긍정하였다.

③ 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다.



④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은 인간에게 호의나 악의를 품지 않으며,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 65번 문제 해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정답 찾기}

ㄴ. 사르트르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ㄷ. 키르케고르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키르케고르는 심미적 단계와 윤리적 단계에서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신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 피하기}

ㄱ. 사르트르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ㄹ. 키르케고르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 키르케고르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갈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66번 문제 해설

사르트르와 듀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입장에서 인간이 자기 실존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듀이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의 추구는 도덕적 성장이나 진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가 성장하고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정답 찾기}

②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을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로 보면서 인간이 자유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자유를 선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 {오답 피하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보았으며 주체성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듀이는 창조적 지성으로 과학적이고 지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절대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듀이는 도덕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⑤ 사르트르는 보편적인 기준의 수립보다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매 순간 옳은 선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올바름은 아니라고 보았다.

## 67번 문제 해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 {문제 분석}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이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모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직면하고 수용함으로써 실존, 즉 본래적 자기를 자각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답해설}

ㄴ. 야스퍼스는 죽음 외에 고통, 투쟁, 책임 등도 자신의 실존

을 자각할 수 있는 한계 상황으로 보았다.

ㄷ. 야스퍼스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로서의 죽음이 아닌 나의 것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은 한계 상황이 된다.

ㄹ.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모두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하이데거는 죽음이 현존재를 가장 근원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68번 문제 해설**

칸트와 듀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값은 칸트, 율은 듀이이다. 칸트는 지성, 건강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며, 오직 선의지만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듀이는 지성에 바탕을 둔 탐구를 통해 문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② 칸트는 도덕 법칙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듀이는 도덕적 가치나 지식이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일종의 가설이라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듀이는 도덕이나 지식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④ 듀이는 도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가설에 해당하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듀이는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은 문제 상황에서 지성적 탐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69번 문제 해설**

듀이와 밀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가)의 값은 듀이, 율은 밀이다. 듀이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성적 탐구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밀은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 ㄴ. 듀이는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성장 그 자체라고 보았으며, 밀은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유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ㄷ. 듀이와 밀은 어떠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용하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ㄱ. 듀이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ㄹ. 밀은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희생은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70번 문제 해설**

베이컨, 데카르트, 듀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의 값은 베이컨, 율은 데카르트, 병은 듀이이다. 베이컨은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주장하였다. 듀이는

인간이 고정된 가치나 규범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개정하고 확충하며 변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① 베이컨과 듀이는 지식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유용하다고 평가될 때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불변의 진리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지식의 유용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② 베이컨은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주관적이고 단편적이며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베이컨과 듀이는 모두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71번 문제 해설**

키르케고르의 기본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키르케고르의 주장이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실존적 상황에서 주체적 결단을 회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며,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르기 위해 ‘신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답해설}**

⑤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성이 곧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④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넘어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키르케고르는 객관적 진리의 추구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체적 결단을 회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72번 문제 해설**

사르트르의 기본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로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②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할 정해진 목적은 없다고 보았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보았다.

④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사르트르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73번 문제 해설**

에피쿠로스와 야스퍼스의 사상 비교

**{문제 분석}**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야스퍼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정신적 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죽음, 미신, 운명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야스퍼스는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서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찾기}**

③ 야스퍼스는 인간은 각자 고유성을 가진 개별자이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육체와 정신적 활동의 소멸이므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② 에피쿠로스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에서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회피하고 제거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자신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깨달으며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좌절을 통해 인간이 자기 실존을 이해하고 존재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와 야스퍼스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현실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74번 문제 해설**

**사르트르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따르는 선의지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찾기}**

②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본성을 본질로 지닌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성이나 본질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르트르가 칸트에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는 절대적 도덕 법칙의 준수자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삶의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내던져진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 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입장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75번 문제 해설**

**하이데거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현존재로서 죽음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유한한 삶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게 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두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참된 실존을 깨달아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세계 안의 현존재인 인간이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세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인간은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만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76번 문제 해설**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의 의미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야스퍼스의 주장이며, ㉠에 들어갈 말은 ‘한계 상황’이다. 야스퍼스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과 같은 한계 상황은 현존재로부터 실존으로 비약하게 하며, 초월자의 암호를 청취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해설}

ㄴ, ㄷ. 야스퍼스에 따르면 한계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거나 피할 수 없는 절대 상황이며,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 {오답피하기}

ㄱ. 야스퍼스는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한계 상황의 좌절을 통해 초월자로부터 받은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존재의 참모습을 깨닫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

## 77번 문제 해설

### 사르트르의 인간관 이해

#### {문제분석}

제시문은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神)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찾기}

ㄱ. 사르트르는 인간을 실존한 다음에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 가는 존재로 보면서, 이런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실존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주체적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ㄷ. 사르트르는 신에 의해 주어진 본질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다.  
ㄹ. 사르트르는 객관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주체적 선택을 통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78번 문제 해설

### 키르케고르와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 {문제분석}

같은 키르케고르, 을은 스피노자이다.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은 유일한 실체이며 세계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 {정답찾기}

②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인간은 윤리 규범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오답피하기}

①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보았다.  
③ 스피노자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④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키르케고르는 인격신에게 귀의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그 자체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79번 문제 해설

### 사르트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문제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먼저 실존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정답찾기}**

⑤ 사르트르는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회피하는 것을 불성실로 규정하고, 불성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 ②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목적이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에는 타인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④ 사르트르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80번 문제 해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같은 사르트르, 혹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고,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정답찾기}**

④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는 사물은 존재하기 전에 본질이 결정되어 있지만,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 ② 사르트르는 인간이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보았다.
- ③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려면 인간 정신의 중심에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종교적 실존은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존재이다.